

통화스와프·환율 쟁점… 韓·美 관세 후속협상 마무리 박차

韓·美 재무장관, 원정·홈 회동

구윤철 부총리, 美 G20 기간 스콧 베선트 장관과 회동 전망
3500억 달러 투자방식 논의
韓, 상설 통화스와프 요구 상태

한·미 양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후속협상을 끝맺음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다음 주엔 인천 영종도에서 잇따라 마주한다.

특히 양국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낼지 주목된다.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약을 비롯해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 원-달러 환율 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앞서 약속한 3500억 달러(496조 원)를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할지에 대한 양측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장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면서 가까운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한국이 금액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전액 현금이나, 아니면 일부 신용·보증을 통한 투자 허용이나 등의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화스와프의 경우, 한도 및 만기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이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환율의 가파른 변동을 막는 효과를 낸다.

우리 측은 대미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도·만기의 제한이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요구한 상태다. 미국이 비(非)기축통화국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스와프가 달러의 과잉 공급 및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구 부총리는 미국 현지를 찾아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의 방문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G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맞물려 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 베선트 장관과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올해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통화스와프)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관세협상을)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했다.

미국 측 입장도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사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실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재무부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내가 만약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열흘 내' 언급에 따라 인천에서의 진전도 관측된다. 다음 주 인천 영종도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10월21~22일)와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10월21~23일)가 각각 열린다.

이어 10월31일~11월1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APEC 기간 중 내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푼 꺾인 가계대출… 기업은 한달새 5.3조 ↑ 현대차, 中 맞춤형 전기차 ‘일렉시오’ 출격

한은, 9월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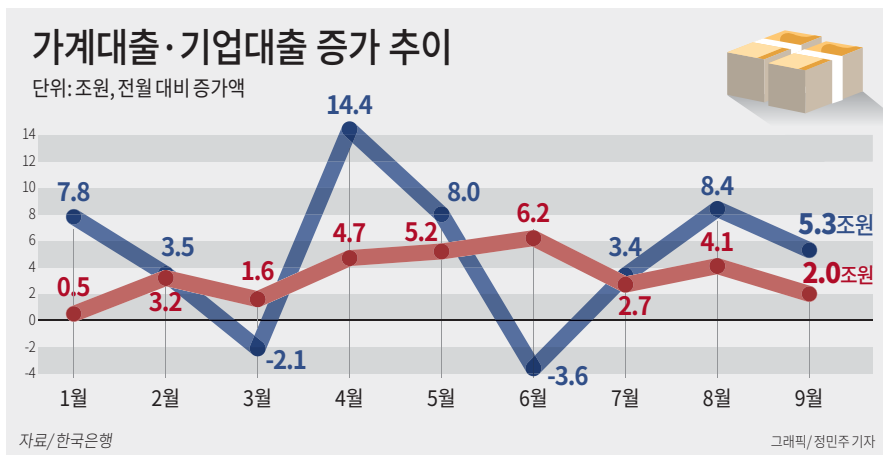
6·27 대책에 가계대출 2조 증가 그쳐
기업대출잔액 1360조 꾸준히 증가

가계 대출이 한푼 꺾였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한 달 새 2조원 증가에 그친 것. 반면 기업대출은 은행 대출 영업 확대와 주식 자금 등으로 한 달 새 5조3000억원 증가해 월평균 증가액을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9월 기준 117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잔액은 932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5만4000호 ▲7월 3만5000호 ▲8월 3만4000호로 감소했다. 거래량이 감소하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소폭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5000억원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며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이 더해지며 감소 전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360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5조3000억원 늘었다. 1월부터 9월 까지 기업대출은 45조원으로 월 평균치는 5조원이다. 평균치를 웃도는 셈이다.

대기업 대출잔액은 294조3000억원

으로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한 기업이 많았다"며 "회사채 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도 증가해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065조8000억원으로 같은기간 4조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주요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확대했다"며 "추석 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베이징현대, 사전판매 시작

중국 현지시장 반등에 초집중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현지 맞춤형 모델로 재도약에 나선다. 기아가 지난해 중국 현지 맞춤형 차량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현대차도 맞춤형 모델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지난 2017년 이른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사태 이후 추락한 현지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BHMC)는 이날부터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일렉시오의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

일렉시오는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첫 전기차다. 개발은 물론 생산까지 모두 현지에서 이뤄진다. 크기는 전장 4615mm, 전폭 1875mm로 기아의 전기 SUV EV5와 비슷하다. 중국 BYD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했다. 최대 용량은 88.1kWh로 중국



현대차가 중국 현지 맞춤형 전차 모델로 선보인 준중형 전기 SUV 일렉시오.

인증 기준 1회 충전 752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충전 시간은 30%에서 80%까지 27분 소요된다. 내년에는 일렉시오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준중형 전기 세단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가 현지 맞춤형 모델로 판매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가 일렉시오로 중국 시장에서 반등에 성공할 경우 현지 철수를 준비했던 부품 업체들도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운 기자 ysw@

K-바이오, 혁신 기술로 미래 연다

메트로경제 22일 '제약·바이오 포럼'

차세대 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이끌 새로운 기술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동물 대체시험법으로 주목을 받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비롯, 효율적인 약물전달로 신약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들도 소개된다.

오는 22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리는 '2025 제약·바이오 포럼'에는 'K바이오

혁신·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혁신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기조강연을 맡은 인벤티지랩은 독자 기술인 'IVL-DrugFluidic'을 보유하고 있다. IVL-DrugFluidic은 고분자 마이크로 임자를 활용해 장기지속형 주사체형을 구현하는 기술로 기존 약물(AP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 지속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형화 제조 플랫폼이다. 인벤티지랩은 이 플랫폼

을 활용, 한달간 지속할 수 있는 비만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개발 중이며, 보건복지부 과제를 통해 장기지속형 약물중독치료제 IVL3004를 개발 중이다. 최근 약물중독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인 비비트롤(Vivitrol) 대비 뚜렷한 우위를 나타낸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가 기조강연을 맡아 '미세유체 기반 플랫폼이 이끄는 차세대 제형 혁신'을 주제로 독자 플랫폼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불법자금 미보호 원칙 구체화 첫 사례

≫ 1면 '최태원 1.4조 재산…'서 계속

이는 불법자금인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경영권 확보 목적의 재산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도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혼인 과반 이전 친인척이나 사회단체 등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급여를 반납한 행위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는 부부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2~2018년 ▲SK(株)주식 329만 주를 친인척 18명에게 ▲SK C&C 주식 9만여 주를 한국고등교육재단에 ▲SK(株)주식 20만 주를 최종현학술원에 각각 증여했다. 또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 927억 원을 지원하고 증여세 246억 원을 대신 납부한 바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